

전국은 지금 부처님 자비 물결

부처님오신날 맞아 전국 봉축행사 다채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행사도 진행

전국에서 '마음에 평화를 세상에 행복을' 전하기 위한 봉축행사가 다양하게 진행됐다. 광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해향)는 5월 20일 광주공원과 아시아문화전당에서 '2012빛고을관동축제'를 개최했다.

이날 관동축제는 광주전에 한국의 토종 물고기를 형상화한 장엄물을 설치해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아시아문화전당 앞에서 진행된 대동한마당은 불꽃놀이를 시작으로, 중국 기예단, 가수들의 공연이 펼쳐졌다.

전남 보성도 같은 날 보성체육공원 다항체육관에서 '보성군민 화합 한마당 연등축제'를 열었다.

보성불교사암연합회(회장 보리)는 보성 북소리에술단, 판소리, 범고시연(송광사 일불스님, 일각스님)의 식전행사에 이어 봉축법요식과 문화공연이 펼쳐졌다.

강진군도 역시 봉축법요식과 제등행진을 병행했다. 강진불교사암연합회(회장 수현)는 5월 23일 강진아트홀 대강당에서 태고종 종정 해초스님을 비롯한 지역불자 5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봉축행사를 열었다.

강진불교연합회합창단, KCC음악봉사단의 식전행사에 이어 진행된 법요식은 불교의례, 헌화 및 관불, 봉행사, 축사, 범어, 축가가 진행됐다.

전북봉축위원회(위원장 원행)는 5월 19일 전주시청 노송광장에서 연등축제를 개최했다. 연등축제에는 3천여 사부대중이 참여해 부처님의 자비사상으로 모든 이들의 행복을 기원했다.

익산봉축위원회(위원장 지광)도 5월 20일 익산 중앙체육공원에서 연등축제를 펼쳤다. 연등축제는 익산문화회원 '서동풍물'의 신명나는 농악놀이를 시작으로 전통문화 가·무·악 공연과 익산시립풍물단, 익산연예인 협회 회원들의 공연에 이어 봉축법요식을 펼쳤다.

이밖에 전북 향토사단 35보병사단(사단장 정한기)이 5월 23일 세병호 호국충경사에서 1천여 개의 연등을 밝히고 연등제를 개최했다.

또 선운사(주지 범만)는 군산 교도소에서 봉축법회와 재소자들을 위한 수계법회를 했다. 이날 선운사는 수계자를 받은 재소자들에게 기념품을 전달했다.

대구는 5월 19일 두류야구장 일원에서 2만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법요식과 제등행렬을 진행했으며, 경북 경주는 5월 18일 경주역 광장에서 봉축법요식을 봉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봉축행사가 이어졌다. 대구에서는 5월 19일 두류야구장에서 제등행진이 진행됐다.

행했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읍사는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5월 19일 한국불교대학 대법당에서 2천여 어르신들을 모시고 경로잔치를 개최했다. 또 한국불교대학은 지역 소년·소녀 가장 30여 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대구 동화사 신도회 역시 5월 20일 초중고 108명 학생에게 총 54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5월 21일에는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대구대학교 조환길 대주교가 동화사를 방문해 부처님오신날 축하 메시지를 전달하고 종교간 화합을 다졌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조동제 전북지사장 부산에서는 5월 20일 구덕운동장에서

부산시민 2만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산대제를 시작으로 부산연등축제 및 봉축연합대법회가 봉행됐다.

부산연등축제를 주관한 박도환 행사집행국장은 "올해 연등제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지난해에 비해 약 5천여 이상의 일반인 참가자가 늘어났다"며 "연등제가 부산의 대표적 행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많은 불자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조동제 전북지사장 손문철 대구지사장·이재진 부산지사장

부산불교대, 3보1배 수행 정진

(사)부산불교교육대학(이하 교육대학)이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불거진 불교계 도박파문으로 인한 "자성과 쇄신 결사"의 동참으로 삼보일배 정진을 수행했다. 5월 19일 부산 동백섬에서 교육대학총동창회 회원 250여명은 개회식을 갖고 약 1km의 동백섬 산책로를 일주하며 스스로를 성찰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우경 총동창회장은 "2005년 재학 당시에 삼보일배 수행을 처음 했는데, 그 때 얻었던 그 감동이 지금의 불교계에도 필요한 것 같아 회장으로써 다시 한번 추진하게 되었다"며 "차량통제가 동반되는 수행이라 예전에 비해 관공사의 허가를 얻기 쉽지 않은데, 동백섬의 경우에는 차량 진입이 금지돼 쉽게 진행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강선태 학장은 "이번 수행에 동참한 모

든 불자들이, 일심으로 하심하는 마음으로 통해 스스로를 정화하고 삼보일배에 담긴 참된 깨달음을 얻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번 행사는 이론에서 벗어나 불교를 직접 체험하고 느끼는 교육 커리큘럼의 하나이며, 이를 계기로 해마다 정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삼보일배는 불보(佛寶)·법보(法寶)·승보(僧寶)의 삼보(三寶)에 귀의한다는 뜻으로 1보에 이기심과 탐욕을 떨치고, 2보에 속세에 더럽혀진 진심(塵心)을 떨치고, 3보에 치심(痴心)을 떨친다는 뜻이 담겨 있다. 세 걸음 걷고 한번 절하면서 자신이 지은 모든 나쁜 업을 뉘우치고, 깨달음을 얻어 모든 생명을 돕겠다는 서원을 하는 것이 삼보일배 수행법이며 최근에는 비폭력시위의 모델이 되고 있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정토원, 故 노무현 3주기 추모제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3주년을 맞아 5월 23일 김해 봉화산 정토원에서 추모제가 봉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안희정 충남도지사, 송영길 인천시장, 장영달 민주경남도당위원장과 봉화마을 주민을 비롯한 50여 명의 조문객이 참석한 가운데 조용히 치러졌다.

추모제에 참가한 정성태씨는 "아버지 제

사에 오는 마음으로 회사직원 8명과 기차를 타고 왔다"며 이날 자신이 직접 만든 열쇠고리를 조문객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아무리 바쁜 일정 속에서도 부모의 제사에 참석하는 것은 자식 된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일본스님 "일본 정부 침병노릇 참회합니다"

군산 동국사, '치욕의 36년, 일제강점기 유물전' 개최



동국사 내부에 마련된 '일제 강점기 치욕의 역사 유물전'이 열리는 전시실

국내 유일의 일본식사찰인 군산 동국사(주지 종명)에서 일본 조동종이 한국불교의 침략행위를 고발하는 '일제강점기 치욕의 역사 유물전'이 5월 23일 열렸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일본 아오모리현 운상사 주지 이치노헤 쇼고(一戸彰晃) 스님은 개인적으로 수집해 온 조선총독부 발행 금강사(현 동국사) 창립 인가 서류를 비롯해 조선사찰 31본산 사진첩(앨범 23X30), 세계 제2차대전 말 조동종(曹洞宗) 사찰서 참배를 강요했던 황금 도금 전사자 위패 등 일제강점기 한국 관련 희귀 자료 110여 점을 전시했다.

일본 조동종의 한국침략 침범 역할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는 이치노헤 스님은 지난 가을부터 일본서 동국사 지원 모임을 결성하고 꾸준히 일본 조동종의 한국 침략 자료들을 수집한 뒤 이에 대한 저술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전시에 대해 이치노헤 스님은 "일본 불교계는 과거 정치적 종교적 침략 사

실에 대해 진정한 반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며 "한일 불교교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불교계가 식민지 정책이나 전쟁에 가담 한 것을 성실하게, 진실된 참회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불제자로서 당연한 입장이다"고 밝혔다.

이치노헤 스님은 "일본에서는 이러한 자료들이 사라질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한국에 영구 기증하게 되었다"며 관련 자료들이 수집되는 데로 계속 한국에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동국사 주지 종명 스님은 "전시회를 부처님의 마음으로 관람해주시고, 다시는 이 땅에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게 다짐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치노헤 스님은 9월 일본 조동종(曹洞宗)이 한국에서 저지른 패악을 끝자로 하는 (조동종은 한국에서 무엇을 했나?)를 출간할 예정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재)일불선교종, (사)통합선교종으로 이원화

명백한 종단 해종행위 vs 분한 신고후 정식 출범

(재)대한불교일불선교종이 (사)통합선교종으로 이원화 되는 등 일불선교종의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일불선교종 창종주인 일불 스님 유지로 1988년 출범한 (재)대한불교일불선교종이 지난 4월초 내부 갈등으로 종정 정각 스님, 총무원장 화엄 스님 등이 주축이 된 (사)통합선교종을 출범하면서 부터다.

종정 정각 스님은 4월 중순 '종단발전'을 위해 (재)대한불교일불선교종과 (사)통합선교종으로 이원화하고 종정원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종도들에게 발송했다. 또한 이를 근거로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 종단명칭 변경 신청을 하면서 본격적인 대립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이에 강력 반발한 재단이사장 경원스님, 3

세 종정 무탈 스님, 현 원로의장 지공 스님을 비롯한 원로의원과 종회의원 및 각 교구 총무원장 등이 5월 15일 인천 호불사에서 모여 회의를 갖고 (재)대한불교일불선교종 중심체제 개혁위원회를 구성했다.

개혁위원회 위원장인 경원 스님은 "종단 상위기구인 재단이사회의 동의 없이 종헌중립에 위배되는 명칭변경 및 일체행위는 명백한 해종행위"라고 주장하고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총무부장 광은스님은 "(사)통합선교종을 중심으로 군소종단의 통합과 연대를 위해 거듭할 것"이며 "봉축이후 전종도 분한신고를 통해 정식 출범선포를 통해 일불 종도의 발전을 지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kimj4217@hyunbul.com

법상종 봉축전야법회 및 생전예수제

대한불교법상종(총무원장 해월)은 5월 12일 총본산인 안성 쌍미특사에서 종정 자봉 스님, 총무원장 해월 스님을 비롯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축전야법회 및 생전예수제 회향 대법회'를 봉행했다. 행사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1부 전야법요식, 2부 생전예수제 회향, 3부 릐포제 마중수기 및 스리랑카 무용단 공연으로 진행됐다.

특히 2부에 진행된 생전예수제 회향은 생전에 참회하고 인로왕보살님과 염부제 시왕에게 선법을 닦는 법회로 진행됐다. 총무원장 해월 스님은 봉축사에서 "모두



법상종은 5월 12일 생전예수제 등을 봉행했다.

가 함께 축하하고 기뻐하는 날이 되자,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웃이 행복해야 한다"고 함께 나누는 나눔의 봉축을 강조했다.

이은경 기자

국제선불교조계종 총본산 성주사 개산

국제선불교조계종(종정 목탁)은 5월 12일 여주 강천면 도전리에 총본산인 성주사(주지 진성)를 개산하고 주지 진상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종정 목탁 스님을 비롯해 대한불교조계종협의회 이사장 지산 스님, 각 종단 총무원장 스님, 여주사암련 회장 성곡 스님, 선불교조계종 종도 및 불자 800여명이 참석해 1부 부처님 이운 점안의식, 2부 개산의식, 3부 스리랑카무용단 공연, 산사음악회로 진행됐다.

교육원장 현담 스님의 종법법맥선포에 이어 종정 목탁스님은 법어를 통해 "이상을 버리고 나를 깨달아 부끄럼 없는 불자제가 되어 생활불교, 생산불교, 종성교화, 인간생명을 실천하는 참 종단이 되는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종정스님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 받아 총본산 성주사 초대주지로 취임한 진성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종단 총본산으로서 위상



국제선불교조계종은 성주사를 개산하고 주지 진상법회를 봉행했다.

을 다할 것이며 성주사 추가 부지에 종단을 불문하여 이용할 수 있는 여법한 다비장과 부도탑을 우선적으로 건립하고, 부처님 진신사리 박물관 개관, 아미타 대불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진리가 되살아나는 인간방생 도량을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031)886-5560

이은경 기자 soe84@hyunbul.com

광주법륜사, 어르신 효도잔치 마련

광주지역 포교활성화를 위해 어르신들을 위한 잔치가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다. 광주 법륜사(주지 월인)는 5월 22일 금호동 어르신 500여 명을 초청해 음식과 문화공연, 선물을 증정하는 효도잔치를 벌였다.

올해 3회째 개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지역 기관장과 연계해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해 참가한 어르신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대교종 원로의원 지암 스님은 인사말에서 "주지 월인 스님은 어릴 적에 부모를

잃어 어른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라며 "늘 건강해서, 사회의 많은 경험들을 후세들에게 전해주길"고 당부했다.

월인 스님도 "도심의 아파트 속에서 생활하시다가 힐끔보면 언제든지 우리 법륜사를 찾아달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많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지암 스님(태고종 원로의원), 월인 스님, 김종식 서구정장을 비롯해 많은 관계기관들이 참여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대행스님 법륜종
그냥 무조건이야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한마음 선원장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나 나는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그냥 무조건이야

대행스님 법륜종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주문은 헌불샵 / 02)2004-8216

동점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현대불교 헌불샵 서울시 중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www.hyunbulshop.com